

# 승려교육 개선 순조로운 진행

## 기본교육기관 조정, 승가대학원 설립 등에 신청 쇄도

조계종 교육원이 추진 중인 승려교육개선 사업이 동국대와 전국선원수좌회와의 일부 협의되지 못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9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대학 교과목 개편 시행 및 각종 승가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상반기 동안 10여 차례의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던 기본교육과정 교과목 개편과 관련해 수석 동화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법어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9개 사찰이 참여를 희망해 왔다.

교육원은 이들 9개 승가대학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학인 수, 교직원 수, 교육시설 등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심사해 적정 수의 승가대학을 선정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승가대학원 설립에는 동화사 해인

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5곳이 '올학 승가대학원'을, 법어사, 백양사, 유마사 등 3곳이 '선학 승가대학원'을 동화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4곳이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을 신청했다. '특정교학 승가대학원'에는 쌍계사가 법패를, 실상사가 화엄학을, 관음사가 정토학을, 운문사가 교직자 양성을 주제로 신청했다.

다만 '초기불교 승가대학원'을 희망하는 사찰이 없어 교육원은 사찰 지정을 통해서라도 학원의 균형을 맞추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찰 승가대학 뿐만 아니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등 모든 기본교육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기중에 미달하는 승가대학은 유예기간을 두고 기중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의 승려교육개선안에 대한

일선 사찰의 호응과는 별도로 동국대 불교대학과 기본선원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인 스님은 "교육원은 동국대에 종단 기본교육 교과목 내용을 불교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할 것과 수행관에 수행관장을 상주시켜 수행 생활 등에 '청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기본선원 운영과 관련해 전국선원수좌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본선원 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본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가칭)불교영어학교와 관련해 10월까지 설립 기관 선정, 12월까지 교육내용과 교수진 확정 등을 거쳐 2011년 3월 개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 자승 스님 방미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 예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9월 14~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 방미는 제33대 집행부의 종단 발전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 포교 네트워크 강화'와 '사찰 음식 대중화', '해의 특별 교구 설립'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스님은 15일 LA, 18일 뉴욕에서 두 지역 사원연합회를 중심으로한 현지 사찰 주지와의 간담회와 법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20일 뉴욕에서는 '사찰음식의 날'을 맞아 외국인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체험케 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17일 예정된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에서 자승 스님은 △종교간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국제 포교 개척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UN 역할 주문 △UN의 위기국가 어린이 돕기 사업에 조계종 참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팔공산 역사탐방길 걷기대회 대구불교방송(사장 허운)은 대구시, 동화사와 함께 8월 28일 대구 동화사 인근에서 '팔공산 역사탐방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구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가해 오전 9시 30분 동화사 정다사설지구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초초대장경 봉안 사찰이었던 부인사까지 왕복 4킬로미터 코스에서 진행됐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 개신교 불교 폄훼행위 본격 대응

### 동화사,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 발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의 불교 폄훼행위와 관련해 대구 동화사가 교구의 역량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민은 8월 27일 경내 설법전에서 교구총회

를 열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최근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 지원이라며 왜곡 조작하고,

동화사 등 불교계를 모욕하는 동영상을 배포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제)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http://www.hansi.org) 참조

## 고불총림 지위 종회 이관키로

### 법규위, "민감한 사안" ... 양측 공방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백양사 고불총림의 총림 지위의 정당성을 묻는 청구권을 본안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은 "사안의 방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법규위 회의에서 세밀히 논의한 후 종회에 이관하자"는 법규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종회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자기 법규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의연·무공 스님이 청구한 '백양사 고불총림 유지의 종헌종법 위배 심판청구' 건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규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예비심사는 청구인인 중앙종회의원 의연 스님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각각 법규위원들에게 소명·질의응답한 후 법규위원들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 의연 스님은 "방장스님이

주지 시몽 스님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자, 대중들은 총림은 개인 절이 아니라 총언을 방장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방장스님이 절 살림살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과 방장 스님 스님의 상좌인 만당 스님(총무원 기획국장)은 "총림 지정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회에서 가부가 지정된다. 조건부 지정이 되면 총무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게 된다. (고불총림 지정) 조건부 지정이었다면 총무원장 제청을 수정·요청했어야 한다"며 "1996년 당시 백양사의 고불총림 지정은 조건부 지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규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고불총림의 총림 지위에 관한 최종 심판은 종회에서 있게 됐다. 하지만 9월 6일 제14대 마지막 임시중앙종회에서 아닌, 제15대 중앙종회에서 다루지게 됐다.

조동섭 기자

## 한국사찰음식의 날

### 1면에서 이어짐

조계종 문화부는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는 장구로 만들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도입기에는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통해 확보된 미국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하고, 음식과 관련한 미국 언론방송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사찰음식 동호회를 구성하고 트위터 등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친다. 올해 말까지는 사찰음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파워블로거 양성교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2단계 정착기에는 2012년

까지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정례화해 한국사찰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사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2013년부터는 격년제 혹은 3년 주기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사찰음식과 관련해 저변 확대된 인식을 바탕으로는 체험관광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모자란 관심을 실질적인 한국불교문화 확산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3단계 안정기에는 미국 내에 사찰음식전문 공간을 설립해 한국불교문화 전반에 관해 상설 소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조계종은 2009년 12월 대전·충청지역 사찰음식을 연구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DB구축 등 사찰음식 관련 자료 축적·정리를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문화부는 사찰음식사업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도 준비 중이다. 문화부 김낙현 행정관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자 총무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최근 성황리에 운영 중인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민우 팀장은 "발우공양 운영이 성공적이라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따라 프랜차이즈, 투자유치, 직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20일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의 한복판에서 한국불교문화가 세계와 소통을 시작한다. 조동섭 기자

## 중국 광동 육조사(부설)

# 근 혜능 국제불교대학 개강안내 근

본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도제 양성과 불교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강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전: 우수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중국 광동 육조사 강원과 선원에 유학할 수 있으며 특히 육조 혜능 대사의 법맥을 받을 수 있는 수계 법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학생이나 회원은 중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태국, 티벳, 일본 등 불교국가와 갖게 되는 각종 친선교류 행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세계선불교 육조사 회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선불교 회원으로서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번지 전화 033)766-2556 팩스 766-2557
- 분 원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31-1호 전화 010-2878-3380

## 중국 광동 육조사(부설) 혜능 국제 불교 대학

## 개강일에 육조사 대원 방장님 참석 특강

- 개강일시 : 2010년 9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원주 혜능 국제불교대학 본원

學科	定員	日時	講義時間	教授
佛教科學	25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2시간	송위지 교수, 김방룡 교수(육조사단장)
作法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시간	청암, 법봉, 종섭스님
佛像造成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시간	불모 금봉스님
書畫	25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간	청곡(이한동), 김일동(前승가대교수)
佛畫	25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시간	자비불교연구원 원장
陶藝	25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시간	혜오도예연구소, 오석경도예가
風水地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한국 풍수지리학회장
命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자인 박기정
觀相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풍수지리학회장
相談心理學	20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시간	소용주 사과나무심기, 상담심리연구소소장
文藝創作學科	20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시간	김창직(前경기도 교수), 문예사조 대표
巫俗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민속예술연구원